

정책분석과 동향

도농 1인가구 빈곤 특성 비교

|김태완·이주미·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도농 1인가구 빈곤 특성 비교

Comparison of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Single-Person Households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가족 구조 변화의 대표적 흐름인 1인가구 증가가 도시와 농촌의 빈곤에 어떤 차이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1인가구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와 농촌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았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이, 도시 지역에서는 19~34세 이하 청년의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소득은 농어촌 거주 1인가구가 도시 거주 1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두 지역 모두 공적이전의 효과로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연령별, 성별, 경제활동 상태별 분포에 따른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 간 빈곤율 변화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이들 특성에 맞는 빈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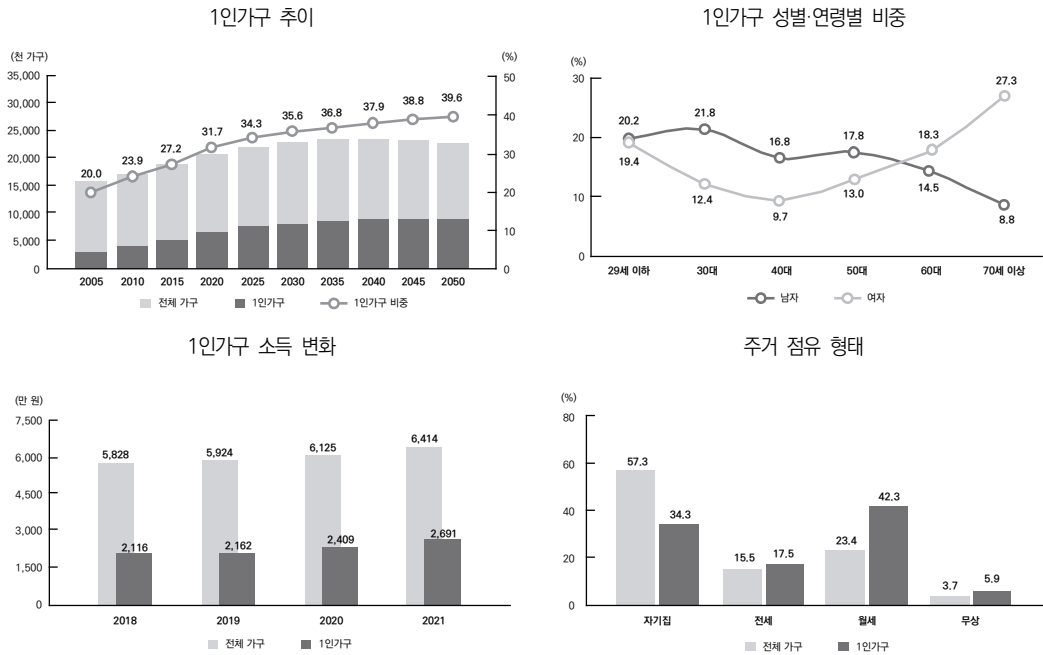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 가구원 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최다 가구가 기존 4인가구에서 1인가구(27.2%)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1인가구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2050년 39.6%)된다. 1인가구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청년 시

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유사했다. 하지만 연령이 올라가면서 장년층에서는 남자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전 가구 평균소득 대비 약 42.0% 수준이었다. 주거는 월세가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 자료가 지역과 1인가구에 대해 충분히 공표되지 않고

[그림 1] 1인가구 규모 및 특징



자료: 통계청. (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pp. 1, 8. 재인용.

있어, 1) 지역과 1인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빈곤 현상을 다루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도농 간 1인가구의 빈곤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1인가구 관련 빈곤 정책에서 다른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의 고령화율이 도시보다 높은 상황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빈곤할 경우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이 필요하다. 분석 자료는 전 가구(1인가구 이상)를 대상으로 도시와 농어촌 구분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소득 변화를 최근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2019~2022)을 가지고 있다.

1) 농어업 소득은 농어가경제조사를 통해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농어가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만, 이 표본 속에 1인가구는 100가구(농가경제조사)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통계청, 2023. 5. 18.). 농어업 종사자 측면에서 1인가구가 적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농어업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고령자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농어촌은 농어업 종사자뿐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농어업 이외 다른 산업, 자영업 등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데이터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도시와 농촌 간 1인가구 변화

가. 1인가구 특성별 비교

가계동향조사에서도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2019년 약 29%에서 2022년 약 32%로 약 3%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의 1인가구 규모는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 대비 5% 초반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는 약 24%대에서 2022년에는 최대 26.7%까지 늘어났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1인가구 증가가 농어촌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인가구의 지역별 연령을 살펴보면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농어촌에서는 65세 이상이 2019년 40%대 후반에서 2022년에는 40%대 초반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농어촌의 고령화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이 20%대 초반으로 농어촌의 절반 정도 비중이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19~34세 이하 청년이 30% 초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이보다 낮은 10%대 초반의 규모를 보이고

[표 1] 1인가구 규모 변화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이상		
	소계	농어촌	도시	소계	농어촌	도시
2019 1/4	29.2	5.4	23.8	70.8	12.8	58.1
2019 2/4	29.4	5.4	23.9	70.6	12.8	58.0
2019 3/4	29.2	5.6	23.6	70.8	12.5	58.3
2019 4/4	29.2	5.5	23.7	70.8	12.6	58.2
2020 1/4	29.7	5.4	24.3	70.3	12.8	57.6
2020 2/4	29.7	5.4	24.3	70.3	12.8	57.5
2020 3/4	29.8	5.2	24.5	70.2	12.9	57.3
2020 4/4	29.8	5.4	24.3	70.2	12.7	57.6
2021 1/4	30.2	5.3	24.9	69.8	12.8	57.0
2021 2/4	30.3	5.0	25.2	69.7	13.1	56.7
2021 3/4	30.3	4.9	25.4	69.7	13.2	56.6
2021 4/4	30.3	5.2	25.1	69.7	12.9	56.9
2022 1/4	31.8	5.4	26.3	68.2	12.5	55.8
2022 2/4	31.8	5.3	26.5	68.2	12.6	55.6
2022 3/4	31.8	5.0	26.7	68.2	12.8	55.4
2022 4/4	31.8	5.2	26.6	68.2	12.7	55.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표 2] 1인가구 지역별·연령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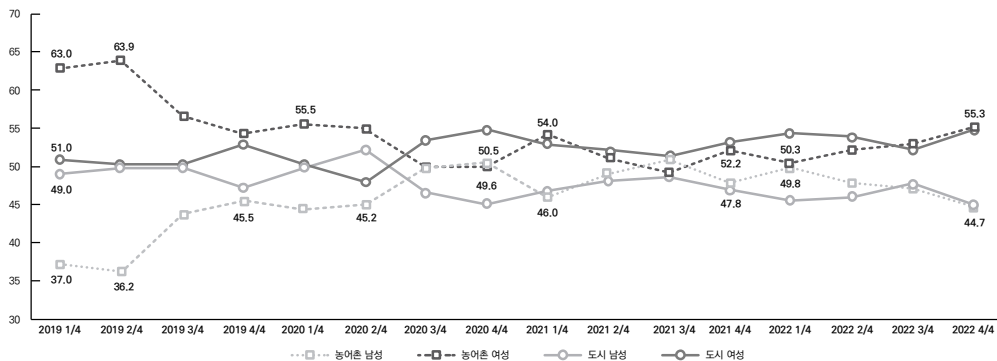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2019 1/4	5.9	20.1	24.8	49.2	31.7	24.0	23.4	20.9
2019 2/4	5.7	19.0	26.4	48.9	32.1	24.0	23.9	20.0
2019 3/4	10.7	19.9	23.9	45.5	33.3	21.8	23.9	21.0
2019 4/4	12.5	18.4	25.4	43.6	32.6	22.2	23.1	22.1
2020 1/4	9.1	16.9	31.6	42.5	32.4	22.0	23.6	22.0
2020 2/4	9.0	15.4	30.8	44.7	31.9	23.0	24.2	20.9
2020 3/4	8.7	17.9	25.7	47.7	31.1	23.1	23.0	22.9
2020 4/4	12.2	21.3	23.4	43.2	30.2	22.6	23.6	23.6
2021 1/4	13.8	19.3	26.6	40.3	27.2	24.5	24.0	24.3
2021 2/4	10.6	17.1	29.3	43.0	27.8	24.6	24.9	22.6
2021 3/4	8.9	15.4	27.0	48.7	29.8	23.6	25.1	21.6
2021 4/4	11.2	14.5	29.3	45.0	29.7	23.5	23.3	23.6
2022 1/4	15.7	17.9	29.3	37.1	31.1	23.0	23.4	22.5
2022 2/4	15.6	19.1	26.3	39.0	31.8	22.0	24.0	22.2
2022 3/4	13.0	15.4	27.4	44.2	32.3	22.5	23.8	21.4
2022 4/4	12.1	15.0	30.1	42.7	32.9	22.2	23.3	21.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2] 농어촌·도시의 1인가구 성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필자 산출.

있다. 농어촌의 경우 청년층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청년층이 농어촌으로 귀촌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지역별 성별 변화를 보면 농어촌의 경우 2019년(1분기) 여성이 63.0%, 남성이 37.0%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격차가 감소하여 2022년(4분기)에는 여성 비중이 55.3%, 남성 비중이 44.7%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2019년에는 차이가 크

지 않았지만 2022년에 들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 시장 및 가처분소득을 보면 1인가구의 소득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대비 시장 및 가처분소득 모두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 수준이다. 1인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 거주 1인가구가 도시 거주 1인가구보다 낮은 소득을 보여 주고 있다. 분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약 70%대 초반으로 도시와 농어촌 거주 1인가구 간 소득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

[표 3] 1인 및 2인 가구 시장 및 가처분소득 변화

(단위: 만 원, 월 기준)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전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이상				전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이상			
		소계	농어촌		도시	소계	농어촌		도시		소계	농어촌		소계	농어촌		도시	
			도시 대비 비율	도시			도시 대비 비율	도시				도시 대비 비율	도시		도시 대비 비율	도시		
2019 1/4	219.9	185.5	129.9	65.6	198.0	234.0	178.1	72.3	246.3	216.1	183.8	148.4	77.4	191.7	229.5	185.3	77.5	239.2
2019 2/4	223.1	189.0	138.1	68.9	200.5	237.3	190.0	76.7	247.6	217.6	186.0	156.1	81.0	192.8	230.7	196.9	82.7	238.1
2019 3/4	225.5	174.7	145.7	80.2	181.6	246.3	214.1	84.5	253.3	219.5	176.6	158.9	87.9	180.8	237.2	218.7	90.7	241.2
2019 4/4	229.5	179.6	158.6	86.0	184.5	250.1	243.7	96.9	251.5	225.1	179.7	168.6	92.5	182.3	243.7	249.5	102.9	242.4
2020 1/4	224.6	183.3	134.5	69.3	194.1	242.0	184.3	72.3	254.8	222.9	183.9	151.2	79.1	191.1	239.4	195.2	78.3	249.2
2020 2/4	211.0	169.7	110.6	60.5	182.7	228.5	183.3	76.9	238.5	229.9	187.9	147.4	74.9	196.8	247.6	215.7	84.7	254.7
2020 3/4	230.2	184.0	143.6	74.6	192.6	249.7	219.8	85.7	256.5	228.5	187.8	160.2	82.7	193.8	245.7	229.1	91.8	249.5
2020 4/4	231.9	182.0	168.0	90.7	185.2	253.0	256.9	101.9	252.2	230.5	184.6	184.0	99.6	184.8	249.9	266.9	108.5	246.1
2021 1/4	225.8	191.5	154.6	77.5	199.4	240.7	192.5	76.5	251.5	230.6	198.5	174.9	85.9	203.6	244.5	210.4	83.5	252.1
2021 2/4	227.8	193.3	148.8	73.6	202.2	242.8	199.3	78.8	252.9	228.0	195.6	167.8	83.4	201.1	242.1	213.1	85.7	248.8
2021 3/4	246.0	204.9	154.0	71.7	214.7	263.8	227.1	83.4	272.4	249.2	212.0	181.0	83.0	218.0	265.3	247.7	91.9	269.4
2021 4/4	248.8	199.3	173.6	84.8	204.7	270.3	260.9	95.7	272.5	246.8	201.2	190.1	93.4	203.5	266.7	272.6	102.8	265.3
2022 1/4	250.4	210.2	175.9	81.0	217.2	269.0	223.5	80.1	279.2	253.7	216.3	196.0	88.9	220.5	271.1	242.0	87.1	277.7
2022 2/4	246.4	215.2	167.4	74.5	224.7	260.9	216.7	80.0	270.9	261.4	227.8	196.3	83.9	234.1	277.0	248.8	87.8	283.4
2022 3/4	264.9	229.6	180.6	75.6	238.9	281.3	244.2	84.3	289.8	257.0	227.8	198.3	85.0	233.4	270.5	250.8	91.2	275.1
2022 4/4	264.3	217.6	166.8	73.3	227.5	286.0	281.6	98.1	287.1	258.7	216.7	187.6	84.4	222.3	278.2	287.7	104.2	276.0

주: 1) 제시된 시장 및 가처분소득은 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득은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들지만 역시
 도농 1인가구 간 소득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나. 도농 간 1인가구 빈곤 특성 변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 30% 미만 가구 빈곤율을 보면 분기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
 여 주고 있지는 않다. 이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
 고 있음에도 소득이 가장 낮은 극빈층은 여전히 빈

곤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는 도시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빈곤율이 전반적으
 로 높았다. 중위 50% 미만을 기준으로 해도 같은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빈곤율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중위 30% 기준으로 전 가구에서 2019년 같은 분
 기 대비 2022년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
 어 정부의 공적이전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도시와 농촌 모두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농어촌 거주자의 빈곤율이 일부 분기에서는 도시보

[표 4] 도시와 농어촌 가구 빈곤율 변화

(단위: %)

전체 (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농촌		도시		전체		농촌		도시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2019 1/4	19.7	27.0	32.2	40.2	16.9	24.0	10.6	21.5	18.5	33.9	8.8	18.8
2019 2/4	18.1	25.3	28.6	37.2	15.8	22.6	8.5	19.5	13.4	27.9	7.4	17.7
2019 3/4	18.7	25.6	28.1	37.2	16.6	23.0	9.1	19.5	14.7	29.8	7.8	17.3
2019 4/4	17.5	24.4	24.0	32.2	16.0	22.7	8.9	18.4	11.9	24.3	8.2	17.2
2020 1/4	20.0	26.6	33.2	40.6	17.1	23.4	10.1	20.8	17.4	32.9	8.4	18.1
2020 2/4	20.5	26.8	33.2	41.1	17.6	23.7	7.3	17.1	12.1	27.6	6.2	14.7
2020 3/4	19.3	26.2	29.9	37.6	17.0	23.6	9.0	19.1	13.5	28.4	7.9	17.0
2020 4/4	18.3	25.2	22.1	30.4	17.4	24.0	8.1	17.9	7.9	20.8	8.2	17.3
2021 1/4	21.0	27.8	31.4	39.4	18.7	25.3	9.2	20.3	13.9	28.8	8.2	18.4
2021 2/4	19.4	26.2	29.3	37.8	17.2	23.6	8.5	18.4	13.1	28.3	7.5	16.2
2021 3/4	18.3	25.0	26.2	34.5	16.6	22.9	7.9	18.0	10.4	24.9	7.3	16.5
2021 4/4	17.8	24.5	21.1	29.9	17.1	23.4	8.0	18.4	9.6	21.1	7.7	17.8
2022 1/4	19.6	25.9	30.3	37.2	17.3	23.4	8.5	18.4	14.5	27.6	7.2	16.3
2022 2/4	18.1	24.3	27.5	34.8	16.0	22.0	8.0	17.4	12.6	26.1	7.0	15.5
2022 3/4	17.8	24.7	26.6	34.5	15.8	22.6	9.1	18.3	12.4	25.4	8.3	16.8
2022 4/4	17.2	24.3	21.6	30.3	16.2	23.0	7.9	17.8	9.9	21.4	7.5	17.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 가구 기준의 빈곤율과 1인가구의 빈곤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중위 30% 미만 1인가구의 빈곤율은 2019년은 30%대, 2022년은 29%대 수준으로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 1인가구 빈곤율이 도시 1인가구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다. 중위 50%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농촌 거주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정부의 공적이전 효과로 빈곤율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장소득 빈곤율에 비해서는 약 10% 포인트 줄어들고 있으며,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과의 차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도농 간 1인가구 빈곤율 차이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도시 거주 1인가구보다는 농어촌 거주

[표 5] 도시와 농어촌 1인가구 빈곤율 변화

(단위: %)

1인가구 (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농촌		도시		전체		농촌		도시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2019 1/4	31.6	39.9	48.1	54.7	27.9	36.6	18.8	35.6	28.2	50.2	16.7	32.3
2019 2/4	29.9	39.0	39.9	50.6	27.6	36.4	16.5	33.5	20.4	39.9	15.7	32.0
2019 3/4	31.7	40.7	42.5	53.4	29.1	37.7	17.6	33.0	22.8	44.9	16.4	30.2
2019 4/4	31.2	40.7	39.3	48.3	29.3	39.0	18.3	34.4	21.5	39.8	17.6	33.2
2020 1/4	31.3	39.8	48.9	57.9	27.4	35.9	18.3	33.4	28.2	47.0	16.2	30.4
2020 2/4	32.4	39.5	51.3	59.7	28.2	35.1	14.7	29.8	22.3	44.5	13.0	26.6
2020 3/4	31.1	39.4	46.9	55.5	27.7	35.9	15.4	31.1	21.4	45.5	14.1	28.1
2020 4/4	30.1	38.5	33.4	44.0	29.4	37.2	15.6	30.6	13.8	32.6	16.0	30.1
2021 1/4	31.9	40.9	42.1	52.8	29.7	38.4	16.6	32.9	20.0	39.9	15.8	31.4
2021 2/4	30.7	38.2	43.5	53.0	28.2	35.3	15.5	30.0	20.2	42.8	14.5	27.4
2021 3/4	28.6	37.3	43.7	55.0	25.7	33.9	13.2	29.2	18.5	42.7	12.2	26.6
2021 4/4	28.7	37.0	35.3	46.0	27.3	35.2	14.7	30.8	17.8	35.9	14.1	29.7
2022 1/4	29.5	36.5	40.3	47.8	27.3	34.2	14.4	29.1	19.8	37.0	13.3	27.5
2022 2/4	27.4	34.1	40.2	47.3	24.8	31.4	13.4	27.3	19.8	38.6	12.2	25.1
2022 3/4	28.4	35.9	41.2	53.6	26.0	32.6	15.1	29.2	18.2	41.5	14.5	26.8
2022 4/4	28.8	36.0	39.3	50.1	26.7	33.3	15.1	29.6	18.9	38.1	14.3	28.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인가구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 1인가구 간 빈곤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 기준으로 1인가구의 지역별 빈곤율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34세 이하와 50~64세는 도시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고, 35~49세와 65세 이상은 농촌의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34세 이하에서는 시장 및 가처분소득 모두 도시 청년이 빈곤에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동향조사 규모에서도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1인 청년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촌은 산업 기반이 주로 농어업이어서 도시에 비해 산업 기반이 제한적이다. 또 농촌에서는 부모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소득활동이 가능하지만, 도시에서는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취업 준비²⁾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촌에 비해 1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0대(50~64세)도 근로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만 49.6세로 50대 이전이다. 50대 이후에는 안정적 직장보다는 노무종사자(23.2%), 서비스 종사자

(13.9%) 등 불안정한 직업에 참여하고 소득활동 부진으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23. 7. 25.). 농촌의 경우 귀농인의 38.1%가 50대이고, 평균연령도 56.4세로 높았다. 귀촌 가구 역시 평균연령 45.7세, 1인가구 77.6%, 직전 수도권 거주가 43.2%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등 도시에 거주하는 50대와 다소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23. 6. 22.).³⁾

반면 35~49세와 65세 이상은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35~49세는 한참 일을 통해 사회 기여는 물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는 세대이다. 하지만 이 세대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농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 현상을 해소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농촌에 거주하는 장년 세대가 시장소득 기준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어 당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도시와 농촌 모두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 거주 1인 노인인구는 80% 이상, 도시 거주 1인 노인은 70% 후반의 빈곤 수준을 보여 34세 이하 청년층, 35~49세 장년층 1인가구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2)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의 첫 취업을 위한 졸업 후 평균 소요 기간은 10.4개월로 상당 기간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3. 7. 18.).

3)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자산 규모는 4억 7000만 원이었다. 5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비율이 30.5% 가장 높았다. 부채는 1억 2000여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월 지출 평균은 약 247만 원이고, 300만 원 이상도 3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마상진 외, 2018, pp. 30~34).

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와 농촌 모두 1인가구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빈곤율이 도시와 농촌에서 많이 감소하여 60%대까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노인 세 명 중 두 명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6] 1인가구 지역별·연령별 가구 빈곤율 변화(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단위: %)

시장소득 기준	농어촌				도시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2019 1/4	- ¹⁾	7.2	31.5	88.6	16.7	20.7	38.8	82.5
2019 2/4	- ¹⁾	8.5	27.1	83.1	19.9	21.0	35.2	82.5
2019 3/4	20.1	28.8	25.7	86.7	20.3	24.3	36.5	80.8
2019 4/4	4.4	19.9	32.1	82.4	24.0	21.8	33.0	84.7
2020 1/4	11.7	23.7	44.1	91.7	15.6	19.7	36.7	80.6
2020 2/4	16.3	38.4	40.1	89.4	15.2	19.3	37.9	78.8
2020 3/4	12.6	33.4	29.8	85.5	14.0	21.1	37.0	79.4
2020 4/4	7.9	26.7	25.3	72.7	17.9	20.2	37.6	77.9
2021 1/4	4.5	21.3	43.6	90.5	17.5	16.1	42.4	80.1
2021 2/4	17.9	23.3	32.5	87.4	17.7	16.6	34.7	78.0
2021 3/4	26.1	27.3	29.1	83.4	19.4	17.9	32.2	73.0
2021 4/4	19.6	7.8	35.1	71.9	21.2	13.0	32.8	76.9
2022 1/4	6.8	7.0	42.7	88.8	15.8	10.9	37.3	80.0
2022 2/4	10.4	10.9	38.0	86.3	13.0	12.7	31.3	76.5
2022 3/4	6.0	14.1	45.4	86.5	16.8	16.7	30.4	75.8
2022 4/4	20.6	23.5	33.4	79.6	18.6	12.6	31.5	78.7
가처분소득 기준	농어촌				도시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2019 1/4	- ¹⁾	7.2	24.0	81.0	17.1	22.5	34.4	64.4
2019 2/4	- ¹⁾	9.5	19.1	65.2	19.7	21.2	32.0	64.4
2019 3/4	25.5	33.3	19.8	67.8	15.7	21.9	30.8	61.1
2019 4/4	4.4	25.3	27.9	62.9	23.0	19.9	28.7	66.5
2020 1/4	11.7	22.3	32.6	75.2	14.3	20.2	32.6	61.6
2020 2/4	20.1	43.6	27.8	61.2	14.7	18.3	29.3	50.5
2020 3/4	7.4	28.1	27.1	68.9	11.5	17.3	28.6	60.7
2020 4/4	9.0	22.9	19.0	51.5	16.2	17.0	33.6	57.0
2021 1/4	4.5	19.8	28.8	68.9	16.8	15.0	34.9	60.7
2021 2/4	17.9	30.9	25.5	65.4	15.0	17.1	27.3	54.0
2021 3/4	26.1	27.8	23.3	61.1	15.7	15.5	25.8	54.7
2021 4/4	15.9	13.1	29.0	52.8	20.1	11.7	28.6	60.5
2022 1/4	3.2	11.2	29.5	69.6	13.7	10.9	31.9	58.8
2022 2/4	12.8	11.1	30.6	67.9	12.3	11.2	24.8	57.3
2022 3/4	6.0	11.1	36.8	65.5	15.4	14.7	23.3	61.0
2022 4/4	18.3	26.8	21.9	59.1	16.4	11.8	28.1	62.1

주: 1) 2019년 1~2분기 농어촌 34세 이하 1인가구 표본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농어촌의 특징은 첫째, 연령별로 1인가구 기준 도농 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둘째, 1분기 빈곤율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한기로 볼 수 있는 시점에서 농어촌 거주 1인가구의 소득이 취약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는 1인가구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취약 시점과 맞물

려 이들 가구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 농한기에 해당되는 겨울 혹은 1분기에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녀 간의 경제활동 참여 차이로 인한 빈곤율 격차가 많

[표 기] 1인가구 지역별·성별 가구 빈곤율 변화(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단위: %)

전체 (1인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 1/4	33.8	67.0	28.5	44.4	27.5	63.6	26.3	38.1
2019 2/4	34.4	59.8	27.5	45.1	26.2	47.7	21.1	38.8
2019 3/4	39.5	64.1	29.1	46.2	34.4	52.2	24.7	35.6
2019 4/4	34.0	60.3	31.8	45.4	29.5	48.3	28.7	37.3
2020 1/4	37.3	74.5	30.4	41.2	28.8	61.6	26.6	34.2
2020 2/4	44.6	72.2	28.1	42.7	33.2	53.8	22.8	30.7
2020 3/4	40.0	71.1	29.2	41.7	33.2	57.7	23.6	32.0
2020 4/4	29.5	58.6	28.7	44.1	19.9	45.6	23.6	35.5
2021 1/4	38.2	65.2	29.3	46.3	25.1	25.4	23.7	38.1
2021 2/4	37.8	67.6	26.1	43.8	31.0	54.1	21.5	32.8
2021 3/4	41.2	69.3	25.2	42.0	34.1	51.5	19.7	33.2
2021 4/4	28.9	40.7	29.6	65.8	25.5	33.5	20.2	53.6
2022 1/4	29.6	65.8	27.9	39.5	20.2	53.8	24.1	30.3
2022 2/4	32.3	61.2	23.5	38.2	25.7	50.4	19.8	29.6
2022 3/4	38.7	66.9	24.6	39.9	30.8	51.1	21.2	32.0
2022 4/4	37.3	60.5	26.8	38.6	27.4	46.7	22.9	32.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4) 가계동향조사 1인가구 중 연령별·성별 분포를 보면 농어촌 거주 1인가구 중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비중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여성 1인가구 비중은 70% 중후반에서 80%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빈곤이 많은 비중을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1인가구 지역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 빈곤율 변화(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단위: %)

시장소득 기준	농어촌				도시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 무급가족종사	실업·비경제 활동인구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 무급가족종사	실업·비경제 활동인구
2019 1/4	2.8	26.9	44.1	87.5	2.7	29.9	12.9	76.7
2019 2/4	3.2	32.6	43.5	81.6	2.3	29.7	14.1	76.1
2019 3/4	4.0	40.5	39.5	85.0	2.6	26.7	13.6	76.8
2019 4/4	3.3	38.7	28.9	86.7	2.5	30.5	12.5	78.7
2020 1/4	4.0	41.3	47.9	86.3	1.9	31.1	15.0	73.6
2020 2/4	1.7	43.0	50.5	87.2	1.9	29.7	15.6	74.6
2020 3/4	2.3	44.9	42.5	89.5	2.1	29.0	15.5	77.6
2020 4/4	2.4	35.1	27.2	84.3	2.9	28.1	15.3	78.5
2021 1/4	2.7	33.3	48.9	85.6	2.7	28.1	16.2	78.4
2021 2/4	2.9	44.6	44.9	83.6	2.6	28.6	17.1	79.1
2021 3/4	1.9	44.5	37.3	85.5	2.2	30.7	14.8	77.7
2021 4/4	2.9	39.4	25.9	87.1	2.3	30.8	12.1	81.0
2022 1/4	2.2	43.0	43.9	82.1	2.9	30.0	14.1	76.8
2022 2/4	2.6	38.2	39.6	86.6	2.8	27.9	15.2	73.7
2022 3/4	4.2	44.9	37.9	84.0	2.8	33.6	14.3	75.7
2022 4/4	3.8	37.4	28.6	83.0	3.6	34.0	14.5	79.5
가처분소득 기준	농어촌				도시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 무급가족종사	실업·비경제 활동인구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 무급가족종사	실업·비경제 활동인구
2019 1/4	2.0	23.8	37.8	72.8	2.2	22.4	12.3	58.7
2019 2/4	2.4	21.8	30.6	67.6	2.0	22.3	13.5	57.0
2019 3/4	4.8	27.3	29.9	72.9	2.2	18.2	11.3	57.4
2019 4/4	3.7	26.6	19.8	69.1	2.2	21.3	10.2	59.3
2020 1/4	3.9	30.3	38.9	70.5	1.9	22.7	13.8	54.9
2020 2/4	2.1	24.4	34.6	59.3	1.0	15.0	12.0	47.1
2020 3/4	2.3	25.1	32.2	73.0	1.6	20.4	10.7	56.4
2020 4/4	2.6	20.3	16.7	63.3	2.8	19.0	11.8	55.2
2021 1/4	1.5	23.3	36.9	62.3	2.2	20.5	11.5	56.6
2021 2/4	2.6	26.1	33.7	68.2	1.8	16.8	13.1	55.3
2021 3/4	1.2	24.3	27.3	67.5	1.9	20.5	11.4	55.8
2021 4/4	3.2	29.4	14.9	66.3	2.3	22.7	10.2	59.9
2022 1/4	1.6	35.0	30.9	62.9	1.9	21.0	9.0	54.7
2022 2/4	3.0	27.2	30.1	63.2	2.1	19.5	8.9	53.2
2022 3/4	3.3	33.4	26.3	65.7	2.3	21.1	12.0	57.5
2022 4/4	3.4	28.4	17.4	61.5	2.8	21.8	12.3	59.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정부 지원의 효과로 여성 1인가구의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1차 노동시장에서 여성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경제 혹은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어촌 1인가구 여성 간에도 빈곤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다양한 참여 경로를 제공하여 여성 1인가구의 지역사회 내 활동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 빈곤율을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율이 80%를 상회하는 모습이다. 도시도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농어촌 지역보다는 소폭이지만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의 고용·자영·무급가족종사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이 10%대로 나타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요 종사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20% 후반에서 40% 정도의 빈곤율을 보이는데, 분기별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공적이전 효과를 통해 시장에서 소득 빈곤율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목할 점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서 공적이전의 효과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후 분기별 차이는 보이거나 도시와 농어

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적이전의 효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지역별 1인가구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빈곤율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별 종사상 지위 분포에 따라 빈곤 정책의 대응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나가며

이 글에서는 가족 구조 변화의 대표적 흐름인 1인가구 증가가 도시와 농촌의 빈곤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1인가구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와 농촌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지역 간 빈곤율 변화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1인가구 변화를 보면 1인가구 대부분이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인구와 가구 분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농촌은 1인가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이지만, 도시 지역은 이와 다르게 19~34세 이하 청년이 30% 초반으로 연령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역시 농어촌 거주 1인가구가 도시 거주 1인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목적인 1인가구 빈곤율을 보면 소득에서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 농어촌 거주 1인가구 빈곤율이 도시 거주 1인가구에 비해 시장소득 기준으로 10% 포인트 정도 높았다. 가처분소득을 보면 도시와 농어촌 간 빈곤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도시보다

는 농어촌 거주 1인가구에서 정부 이전소득의 효과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 분포에서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고령층이 많은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빈곤율을 연령별로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청년과 50대 중고령대는 도시 거주 1인 빈곤율이, 34~49세(장년층)와 65세 이상에서는 농촌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령별 차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가족 구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연령별 차이 발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고령 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도시에 비해 농어촌 거주 노인의 빈곤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기별로도 차이를 보여 농어촌 1인가구 노인의 경우 소득활동이 적은 1분기에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었다. 또 농어촌 1인가구 중 청년과 장년층의 경우 빈곤 변화가 불안정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 거주 청년, 장년층에 비해 소득활동이 불안정하며, 안정적이지 않다.

농촌 1인가구의 빈곤지수를 보면 장년층(35~49세)의 불안정한 소득활동과 고령층의 높은 빈곤 현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농어업이라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의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경제 혹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귀농인의 75.3%, 귀어인의 77.3%, 귀촌 가구의 77.6%가 1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3. 6. 22.). 더불어 1인가구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출 지원(주거, 생활비 등)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1인가구 여성 역시 남성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소득, 안전, 돌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혼자 생활하는 여성 독거 가구가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 노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䄠

참고문헌

- 마상진, 박대식, 안석, 황정임, 남기천.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5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22. 12. 7.).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5. 18.).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6. 22.). **2022년 2022년 귀농·귀촌인 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7. 18.).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7. 25.).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Comparison of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Single-Person Households

Kim, Taewan

Lee, Jumi

Choi, Jun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we examine how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 representative change in family structure, affected poverty in urban and rural areas. In addition, we explore the necessary policies to alleviate poverty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rural and urban areas. The ri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was particularly noticeable among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in rural areas and among those aged 19 to 34 in urban areas. Income levels were lower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rural areas tha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urban areas. As a result of increased public transfers, the disposable-income poverty rate decreased more than the market-income poverty rate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We also examined changes in the poverty rate by age group, sex, and employment status and drew implications for group-specific poverty reduction policies.